



**'A=오리인플루엔자?' 망언**

**잘못된 정보-왜곡된 보도가  
오리산업을 망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오리인플루엔자'라고?

3년째 계속된 사육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이라는 수렁에 빠져 인간힘을 쓰고 있는 이 때 망언이 터져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김영준 동물관리연구실장이 5월 4일자 한겨레신문(애니멀피플) 인터뷰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공식 용어인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를 부정한 것이다.  
급기야 "오리가 시의 숙주이기 때문에 명칭을 '오리인플루엔자'로 지어야 한다"는 김영준 실장의 망언이 나왔고, 이에 전국의 오리농가들은 분노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공식용어인 '조류인플루엔자' 부정  
"과학적 근거조차 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져라"  
특정축종비하·대한민국가금산업 막대한 피해 초래

###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관리연구실장은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한국오리협회는 김영준 실장의 망언에 즉각 대응했다. 인터뷰 게재를 확인한 직후인 5월 6일 한국오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잘못된 정보로 오리산업에 피해를 준 김 실장이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오리를 수입해다 먹어서 질병의 유입창구가 없어 AI 발생이 없고 우리는 뒤늦게 정책적으로 오리농가 휴지기를 통해 유입 창구를 줄여 바이러스가 닭으로 넘어갈 고리를 차단한 것"이라는 망언과 함께 마치 모든 오리농가들이 그런 것처럼 "수박을 재배한 자리에 오리를 놓아 키워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퍼뜨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발언

을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최근 오리산업은 지난 겨울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올해 3년째 시행된 오리농가 사육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발생중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리고기 소비는 80% 이상 급감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 실장이 수의학 전공자이기 이전에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공인으로서 입에 담아서 안 될 과학적 근거조차 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 오리농가들은 이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 오리협회 전회원 항의전화-정정보도 요구 생존권 사수 집회준비...전방위 압박

오리협회는 한겨레신문의 정정보도를 비롯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오리농가와 관련종사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오리협회는 집회 신고를 시작으로 집회준비에 돌입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립생태원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항의와 국립생태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같은 날 협회는 부정적 기사 보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요청했다.

**성명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오리인플루엔자”?**

-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관리연구실장은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

최근 오리산업은 지난 겨울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올해 3년째 시행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현재 발생중인 코로나 19의 여파로 오리고기 소비는 80% 이상 급감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와중에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김영준 동물관리연구실장은 지난 5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니멀피플) 인터뷰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공식 용어인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AI의 숙주이기 때문에 명칭을 “오리인플루엔자로 지어야 한다.” 라는 망언으로 전국 오리농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은 오리플 수입했다 먹어서 질병의 유입장구가 없어 AI 발생이 없고 우리는 뒤늦게 정책적으로 오리농가 휴지기들 통해 유입 장구를 줄여 바이러스가 닭으로 넘어갈 고리를 차단한 것이다.” 라는 망언과 함께 마치 모든 오리농가들이 그러한 듯 “수박을 제배한 자리에 오리를 놓아 키워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릇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퍼뜨려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산업에 큰 피해를 우려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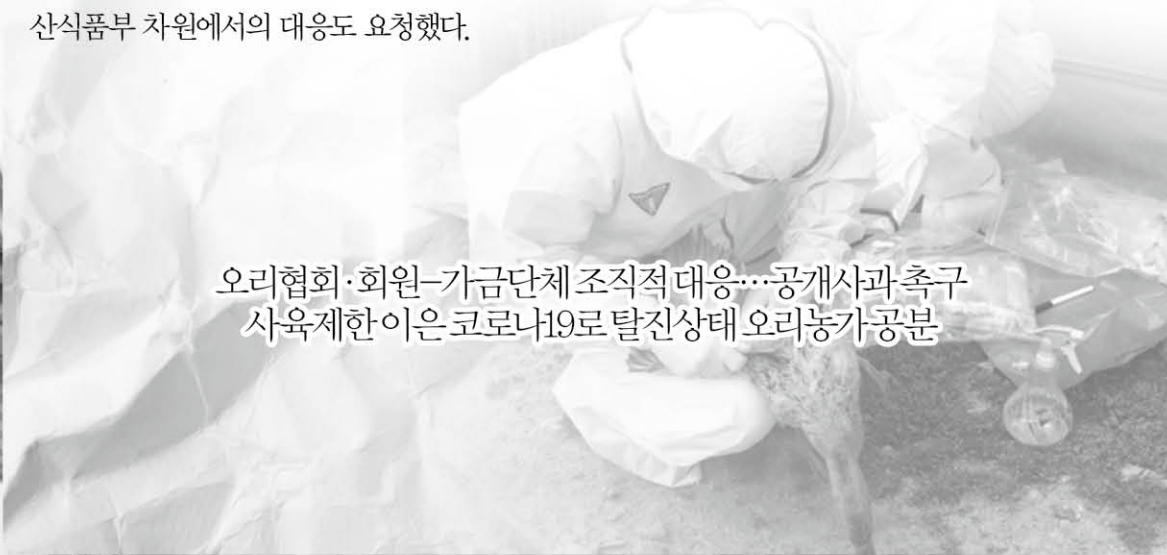
이는 본인인 수의학 전공자이기 이전에 공공기관의 한 공인으로서 입에 담아서서는 안 될 과학적 근거조차 없는 무책임한 망언으로 전국의 오리농가들은 이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김영준 실장은 본 망언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라! 아울러 한겨레신문의 정정보도를 비롯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오리농가와 관련종사자들은 우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20. 5. 6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6층 (전화 : 02-597-5249)

뿐만 아니라 협회는 전회원의 항의 전화를 시작으로 전방위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날인 5월 7일 해당기사의 제목과 내용일부가 정정됐다. 그럼에도 협회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14일 이내 조정을 위한 당사자 출석요청을 예정했다.

한편 협회는 한겨레신문사에 게시 중단요청서를 제출하고 전회원이 항의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쳐 항의글을 작성해 전달했다.

오리협회·회원-가금단체 조직적 대응...공개사과 촉구  
사육제한이은 코로나19로 탈진상태 오리농가공분



## 육계·토종닭 등 가금단체와 연대 대응 “특정축종 비하·국민적 공포 조장” 비난

협회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날인 5월 8일부터는 한국육계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 등과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의 가금농가들을 대표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가금단체발 성명서에서 전국의 가금농가들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오리농가들은 올해 3년째 시행한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생

계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재 발생중인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금산물의 소비가 급감하는 등 가금산업 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도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김영준 동물관리연구실장이 한겨레

**가금생산자단체 성명서**

**가금산업의 피해는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망언을 퍼뜨린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과 원장은 즉각 사죄하라!**

전국의 가금농가들은 AI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오리농가들은 올해 3년째 시행한 겨울철 사육제한에 따라 생계곤란을 겪었다. 더욱이 현재 발생중인 코로나 19의 여파로 가금산물의 소비가 급감하는 등 가금산업은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김영준 동물관리연구실장은 지난 5월 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폐지인플루엔자는 있어도 조류인플루엔자는 없듯이 조류인플루엔자는 사실 오리인플루엔자이다.” 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으로 폐지와 오리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또 그는 “일본은 오리를 수입해다 먹어서 질병의 유입창구가 없다.” 라면서 우리나라 AI 발생의 원인으로 오리농가를 지목하는가 하면 “수막새에만 자리에 오리를 놓고 오리 배설물이 퇴비가 되니까 다음에 수막을 매개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을수가 없다.” 는 헛소리를 전 국민이 보는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서슴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의 실장이라는 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것도 일간지에 보도되는 인터뷰에서 발언함으로써 특정 축종을 비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가금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가금농가들은 엄중히 요구한다. 국립생태원 박용목 원장과 김영준 실장은 즉각 사죄하라. 아울러 정정보도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금농가에 대한 모욕죄와 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20. 5. 8

(사)한국육계협회장 · (사)한국토종닭협회장 · (사)한국오리협회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오리인플루엔자 망언’과 관련해 가금단체들은 돼지와 오리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금단체들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실장이라는 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것도 일간지에 보도되는 인터뷰에서 발언함으로써 특정 축종을 비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가금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전국의 가금농가를 대신해 국립생태원 박용목 원장과 김영준 실장은 즉각적으로 사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금농가에 대한 모욕죄와 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립생태원 앞 집회신고…대응수위 올려 박용목 원장 사과문 발표

협회는 5월 8일 국립생태원 정문앞 집회신고를 제출하고 장기화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로 집회기간을 계획했다.

또한 전화원에게 항의전화와 항의글 작성을 네 번째로 요청하면서 압박수위를 계속 높였다.

이에 5월 11일 국립생태원 관계자가 협회를 방문해 실무자와 면담을 갖고 다음날까지 사과문 등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는 별개로 전화원 항의전화와 항의글 작성을 위한 요청은 계속됐다.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5월 12일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박 원장은 사

### 오리농민 및 가금농민께 올리는 글

그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우리나라 가금산업을 지탱하고, 이끌어 오신 오리농민과 가금농가에 직원의 부주의한 용어 사용 등으로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드린데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오리농민과 가금농가에서 느끼셨을 상처를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언행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불찰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리농민과 가금농민께 고개 숙여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국립생태원장 박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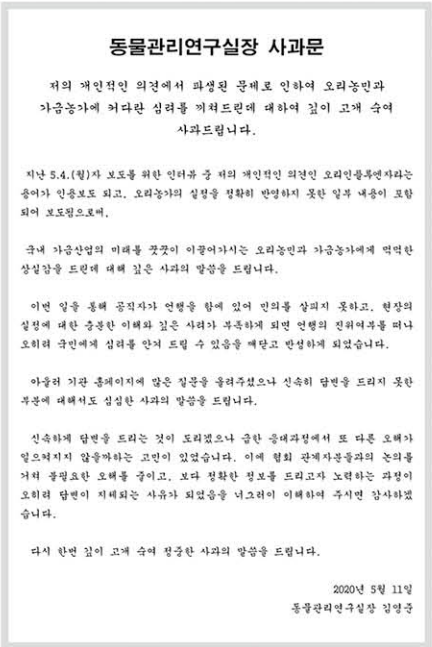
과문을 통해 “그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우리나라 가금산업을 지탱하고, 이끌어 오신 오리농민과 가금농가에 직원의 부주의한 용어 사용 등으로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드린데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오리농민과 가금농가가 느끼셨을 상처를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직원의

언행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불찰이 본인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영준 실장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장 실정 살피지 못한 ‘개인적 의견’

5월 11일 드디어 망언의 당사자인 김영준 실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별도의 사과문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에서 파생된 문제로 인해 오리농민과 가금농가에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인터뷰 중 개인적인 의견인 오리인플루엔자라는 용어가 인용 보도 되고 오리농가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보도됨으로써 국내 가금산업의 미래



있다고 밝혔다.

를 곳곳이 이끌어 가는 오리농민과 가금농가에게 먹먹한 상실감을 드린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가 언행을 함에 있어 민의를 살피지 못하고 현장의 실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깊은 사려가 부족하게 되면 언행의 진위여부를 떠나 오히려 국민에게 심려를 안겨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반성하고

### 잘못된 정보로 피해입은 유사사례 경중 적극적 대응...국민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번 사례는 번번히 축산농가를 향한 잘못된 정보로 대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다른 모든 사례에 대해 경중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 협회는 이후에도 국립생태원의 답변 회신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국립생태원 조치사항에 대한 협회 임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추가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협회 회원사들의 항의전화와 항의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대응상황 및 조치결과를 회원과 회원사에 알리는 한편 언론 중재위원회에도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잘못된 정보로 오리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오리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